

목차

- 일정표
- 식단표
- 일기
- 자기소개서
- 뭐다 프로그램 평가
- 움직이는 학교 평가
- 공연 대본

하루 일정표

시간	일정
7:00	기상
7:30~9:00	아침식사, 각자 수업준비
8:30	아침열기
9:00~12:00	오전수업
12:00~2:00	점심식사, 점심시간
2:00~6:00	오후수업
6:30~ 7:30	저녁식사
8:00~ 9:00	청소, 씻기
9:00~	하루나누기, 간식, 통신원 글 올리기
11:00~	취침

1번째 주

시간	수업	10 일(월)	11일(화)	12일(수)	13일(목)	14일(금)	15일(토)	16일(일)
9:00 - 9:30	몸 깨우기(배요섭)	요가-태양을 향한 경배 Suri Namaskaram						휴식
9:30 - 10:30	공간과 놀기(싸싸)	타인과 소통, 표현, 공간을 활용한 연극놀이						
10:30 - 12:00	이미지글쓰기 몸으로글쓰기 (이주야)	이미지/인물과 공간에 대한 감각적 글쓰기	인물과 공간이 만나 일어난 사건은?/ 인물에게 가장 중요했던 순간은?	그 인물의 독백 +정지 동작 찾기	다이알로그 : 두 인물의 만남	독백/ 다이알로그 발표	소리로 나만의 노래 만들기 (최수진)	
12:00 - 2:00	내 몸 챙기기	점심식사						
2:00 - 4:00	말랑말랑텍스트(싸싸) 소리로 이야기만들기(최수진)	주제별 텍스트를 토대로 장면 연출 즉흥연기 인물성격구축 (싸싸)		내 몸의 소리 탐색 (최수진)	말랑말랑 텍스트 (싸싸)	공간 속에서의 소리 탐색 (최수진)	휴식	
4:00 - 4:30	그림 그리기 (공병준)	자화상						공연관람
4:30 - 6:00	아크로바틱과 뷰포인트(공병준)	순수한 신체 움직임 훈련/ 공간과 움직임의 관계, 몸과 몸의 관계 인식하기						
참고사항	10일(일) 6:30 PM 오리엔테이션(배요섭)							

2번째 주

시간	수업	17 일(월)	18일(화)	19일(수)	20일(목)	21일(금)	22일(토)	23일(일)	
9:00 - 9:30	몸 깨우기(배요 섭)	요가-태양을 향한 경배 Suri Namaskaram							공간 정리 및 퇴교
9:30 - 12:00	모듬별 장면연습 step1	모듬 1,2,3 장면만들기	모듬 1,2,3 장면 발전시키기	모듬 1,2,3 장면다듬기	모듬 1,2,3 장면다듬기	각 장면 세부 다듬기	총 연습		
12:00 - 2:00	내 몸 챙기기(점심)	점심식사							
2:00 - 4:00	모듬별 장면연습 step 2	모듬 1+2+3 장면만들기	모듬 1+2+3-7 - 장면만들기	모듬 1+2+3 장면만들기	장면발전 시키기	전체 장면 구성하기 전체 흐름만들기	2:00 -3:00 공연준비 3:00 - 4:00 공연발표 4:00 - 5:00 이야기 나누기 5:00 - 6:00 공연철거		
4:00 - 6:00	전체 연습	step1+2 공유, 정리	step1+2 공유, 정리	step1+2 공유, 정리	각 장면들 연결 구조 만들기	양상블 장면 연습			
저녁 특별활동				무대 만들기		총연습			
참고사항					무대 조명 셋업				

2학년 음식이신 학교 식단표

구분	행복을 여는 아침	정성이 가득한 점심	건강을 생각하는 저녁	간식
06월 09일 일			카레라이스	
06월 10일 월	간장계란밥	골뱅이쫄면	버섯된장국 계란말이	당면떡볶이
06월 11일 화	황태미역국	토마토파스타	오삼불고기	고구마 맛탕
06월 12일 수	소고기무국	생채비빔밥	비빔군만두	월남쌈
06월 13일 목	모닝빵 스프 양상추샐러드	김치칼국수	닭강정	빙스크림
06월 14일 금	야채죽	김밥 라면	콩나물밥+김자반	소떡소떡
06월 15일 토	낙지젓갈 / 계란찜	메밀국수	짜장밥	계절과일
06월 16일 일	김치치즈볶음밥	<아점>	부대찌개	[간식 없는 날]
06월 17일 월	돈육김치찌개	비빔국수	닭갈비덮밥	감자버터구이
06월 18일 화	떡만두국	제육볶음	꼬치어묵우동	고구마팬피자
06월 19일 수	식빵 소세지 계란프라이	열무국수	오므라이스	떡, 수박화채
06월 20일 목	콩나물김치국	육쌈냉면	쌈밥	빵
06월 21일 금	미역국	잡채덮밥	닭볶음탕	계절과일
06월 22일 토	일본카레	닭볶음비빔밥	남은 반찬 1	

2019년 6월 9일 일요일

오늘은 5시까지 아이들이 뛰다에 모였습니다
뛰다 선생님들과 만남도 가졌습니다.

지연우

가장 기억에 남은 일은?

선생님들이랑 이름을 소개 한 것이다.

정채용준

가장 기억에 남은 일은?

뛰다 온거

칭찬해요

나

내일 우리가 할 일?

요가



2019년 6월 10일 월요일

오늘은 오전에 요가와 글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말랑말랑 텍스트를
했습니다.

형두희

가장 기억에 남은 일은?

연기하는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

이다정

가장 기억에 남은 일은?

대본읽기

칭찬해요

오늘 열심히 한거

반성해요

딱히 없어요

내일 우리가 할 일?

일단 아침에 일어나기



2019년 6월 11일 화요일

오늘은 공간과 놀기라는걸 했습니다.
오후에는 아크로바틱과 그림그리기를
했습니다.

양지원

양지원

가장 기억에 남은 일은? 애들과 논 것.
늦잠 잔 것 점심과 저녁이 너무 맛있었다.
(어제보다 좀 덜 힘들었고 연기 하는데
부끄럽고 민망했는데 무사히 잘 넘겨서
좋았어요.) 워킹 연습과 웨이브 연습이
재밌었다.

칭찬해요

오늘도 열심히한다.

반성해요

오늘도 시끄럽고 집중 안한 18학번



2019년 6월 12일 수요일

오늘은 오전에 요가와 글쓰기를 했습니다
오후에는 그림그리기 와 소리로 이야기
만들기를 했습니다

최현서

가장 기억에 남은 일은?

공준쌤 면담~ 생각보다 재밌어서
호감도 올라감~(인상..하는거!!) 진짜
면담 꿀잼...

칭찬해요

열심히 한 나! 그리고 친구들

반성해요

시끄러운 18여자,남자... 특히 남자!!

내일 우리가 할 일?

또 프로그램!



2019년 6월 13일 목요일

오늘은 오전에 요가와 몸으로 글쓰기를
했습니다. 오후에는 말람말랑 텍스트를
했습니다.

정하연

가장 기억에 남은 일은?

공준쌤 여자친구..

칭찬해요

하연

반성해요

하연

내일 우리가 할 일?

글세요



2019년 6월 14일 금요일

오늘은 요가와공간과 놀기를 했습니다.
오후에는 공간속에서 소리 탐색을
했습니다.

서찬울

가장 기억에 남은 일은?

족구

칭찬해요

허(딱!)솔



2019년 6월 15일 토요일

오늘은 요가를 했습니다 오후에는
1인극을 보았습니다.

정하연

가장 기억에 남은 일은?

연극 본 일

칭찬해요

나

최현서

가장 기억에 남은 일은?

강태경



2019년 6월 16일 일요일

오늘은 휴식했습니다.

거의모든 사람이 화천읍내로 나갔습니다.

최현서

가장 기억에 남은 일은?

화천가서 놀기

칭찬해요

박지해 양지원 김다슈리

내일 우리가 할 일?

대본

2019년 6월 17일 월요일

대본을 받아서 처음 장면 만들기를
해봤습니다. 아이들 모두 재미있어하고
좋아했던 날이었습니다. 판소리 공연도
보았습니다.

노현지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판소리 공연, 대본 나온 것

칭찬해요

대본 열심히 써주신 공준쌤

내일 우리가 할 일?

아침먹기

박지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대사 못외워서 힘드러



2019년 6월 18일 화요일

오늘도 장면2 만들기를 하였습니다. 새로운 움직임 동작도 배우고 장면으로 쓸수 있게 다듬었습니다.

김산아

가장 기억에 남은 일은?

드디어 장면 2까지 진도가 나갔다. 은근 단점이 많아서 조금 걱정된다

윤현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남자들끼리 했던 안무 연습

내일 우리가 할 일?

장면 3 연습



2019년 6월 19일 수요일

오늘도 장면2.3.4 만들고 다듬는
과정을 했습니다.

새로운 움직임 동작을 장면에 넣고 연습
했습니다. 남자 아이들은 화천으로
농구를 하러 나갔습니다.

정하연

가장 기억에 남은 일은?

그닥 없음 어제랑 한일이 비슷함

칭찬해요

공준쌤(하트)나 정하연(하트)오우진

반성해요

이한주,,, 정하연

내일 우리가 할 일?

오늘이랑 비슷할 듯



2019년 6월 20일 목요일

오늘은 수정해가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연습했습니다. 힘들어 하는 아이들도 있었으나 대체로 재미있어했습니다.

강하늘

가장 기억에 남은 일은?

1~5 장면연습

칭찬해요

모두들

반성해요

집중 안해서 실수한거

내일 우리가 할 일?

런하기



2019년 6월 21일 금요일

오늘은 공연 리허설을 3번이나
돌린 날이었습니다. 재미있어하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윤현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런

내일 우리가 할 일?

공연 !

서찬울

가장 기억에 남은 일은?

연습

반성해요

연습할 때 틀려서



2019년 6월 22일 토요일

오늘은 공연 날이었습니다. 실수를 해서
아쉬워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잘했다는
분위기였고 공연을 잘 마무리 했습니다.

최현서

가장 기억에 남은 일은?

공연...!!

칭찬해요 18

열심히

반성해요 18

그래도 좀 아쉬운

내일 우리가 할 일?

모꼬지 가자양~



자기소개서

강태경

자기소개:제천 간디학교 2학년 18 골반 학생, 15살 (4월 20일)

언니, 엄마, 아빠, 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음.

먹는 거 좋아함, 뭐든지 다, 아이스크림 최강 좋아함.

교정해서 발음,,, 좋음^^;;

친구 놀리는 거 좋아함, 괴롭히고 시치미떼기도 잘함.

무섭게 생겼다는 말 많이 들음. 무표정으로 있으면 화났냐고 물어봄.

얼굴에 감정이 다 드러남, 좋고 싫음이 확실함.

낯가림 심함. 친화력은 좋음

기대되는 점: 숙소, 연극 내용, 전부다.

바라는 점: 착한 선생님, 아이스크림.

해본 거: 안 해본 거 빼고 다해봄

자기소개: 김다슬

안녕하세요. 저는 제천 간디학교에서 재학 중인 김다슬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은 먹는 것, 춤추는 것, 노래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조류입니다. 그중에서도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를 제일 좋아합니다. 비둘기는 너무

징그럽게 생겼어요. 그렇지 않나요? 아참! 그리고 제가 다한증이

조금 심해서 땀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쓰는 것도 너무 더

워요. 저는 여름이 제일 싫어요. 너무 덥고 땀이 나요. 제가 잘하는 것은 먹기를 가장 잘해요. 저는 시키는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연기를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서 자신감이 있어요! 저는 자신감이 있어요! 저는 뭐든지 할 수 있어서 시켜만 주세요!
감사합니다!(하트)

자기소개: 김동진

안녕하세요. 저는 제천간디학교에서 뛰다를 가게 된 김동진이라고 합니다.

연극은 처음이고 하고 싶지도 않고 하기 싫지도 않네요.

하고싶은 건 없고 하기 싫은 것은 눈에 띄는 짓 좋아하는 것은 농구와 게임, 핸드폰 잘하는 것은 딱히 없는거 같고 하지만 가면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김유환

이번 움직이는 학교에 재해서 기대되는 점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거라 매우 기대되고 내가 직접 만든다는 게 기대된다.

잘하는 건 없는 것 같다.

좋아하는 것은 농구, 수영, 복싱, 드럼 치기

다짐과 약속

욕 쓰기 않기, 무빙 규칙 잘 지키기

해본 것

보컬, 복싱, 수영

이번 무빙을 통해 도전하고 싶은 것
기타를 좀 연습하고 싶다.

자기소개: 노현지

안녕하세요 저는 제천간디학교에 다니는 2학년 노현지입니다.

저의 생일은 2005년 09월 25일입니다. 조금 많이 남았네요^^

저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입니다.

밥 말고 고기랑 면울 좋아합니다.

조금 뽀뽀 합니다.

뛰다가서 조금 시끄럽게 떠들고 싶습니다.

저는 눈썹을 잘 그리고, 소리를 잘 지르고, 목소리가 크게 저의
장점입니다.

조금 뽀뽀하고, 목소리가 조금 크게 저의 단점입니다.

재밌고 신나고 감동이 조금있는 연극을 만들고 싶습니다.

정말 정말 기대가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습니다.

자기소개: 박지해

좋아하는 것: 사진 찍는거, 글씨쓰는 거, 노래듣는거, 요리하는거

잘하는 것: 잘 모르겠다. 좋아하는 건 있어도 잘한다고는 생각
안한다.

다짐: 힘들어도 짜증내지 않기, 많은 친구들과 깊게 친해지기

바라는 거: 작년에는 무빙중에는 재미없고 끝내서야 아쉽고 재밌
었는데~ 했지만 이번에는 아쉬운거 없이 하는중에도 재밌고 끝
나고도 즐거웠던 추억으로 기억되면 좋겠다.

도전해 보고 싶은 거: 같은 학년 친구들과 다른 학년 없이 우리 학년! 끼리만 또는 가서 해보고 싶은 거 수다 떨고 근처 놀러가고 하고싶다!

자기소개: 서찬울

성별:남

좋아하는 것:음악,게임

잘하는 것:음악

해보고 싶은 것:연극

해 보았던 것:음악

기대하는 것: 학년의 단합

자기소개: 양지원

안녕하세요 저는 제천간디학교 18학번 2학년 양지원입니다.

이번에 뛰다에 가서 연극을 한다고 해서 엄청 기대를 하고 있고, 연극을 한 번도 안해봐서 너무 떨리지만 또 그만큼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기를 한 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기회가 생겨서 너무 좋아요. 잘하는 건 없지만 이번 기회에 어색한 친구들과

친해지고, 만들기를 좋아하는 잘은 못하지만 꾸미는 것도 좋아하고

먹는 걸 제일 좋아해요.

자기소개: 윤현태

이번 무빙에 기대되는 점: 한번도 해보지 않은 분야라서 새로 배

운다는게 기대되고, 연극을 통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발전도 기대된다.

다짐과 약속: 이번엔 정말 규칙도 잘 지키고 적극적으로 무빙에 참여하겠습니다.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은 나도 잘 모르겠다. 좋아하는 것은 농구, 기타, 음악, 친구들이랑 놀기 등등 싫어하는 것 빼곤 다 좋아한다.

지금까지 해본 것: 위에서 말한 좋아하는 것들도 포함되고 음악, 운동 등 몇몇 분야에선 나름 많은 것을 해본 것 같다.

이번 무빙을 통해 도전하고 싶은 것: 무대에서의 압박감 없이 공연도 해보고 싶고, 모든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싶다.

이름: 이다정

나이: 15세(만 13세)

키: 161

혈액형: AB형

성별: 생물학적 여성, CIS F

취미: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주로 일본곡), 커뮤니티

생일: 2005.6.25.

특이사항: 발과 손이 작음, 일본어 조금 함

좋아하는거: 고양이, 보작한 동물들, 그림, 게임, 가오리

싫어하는거: 날아다니는 벌레, 내 동급생들 대부분

이름: 이한주

좋아하는거: 게임, 놀기, 자기, 먹기, 똥싸기

싫어하는거: 가지, 양파, 버섯, 파, 똥

이름: 이한준

기대되는 것: 나는 연기를 굉장히 못하기 때문에 뭐다에서 연기를 해봄으로 연기를 잘해졌으면 좋겠다

다짐, 약속: 절대 사고 안 치려고 합니다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나는 음악과 농구를 좋아하며 둘 다 어느 정도 한다

해본 것: 초등학생 때 연극공연, 밴드 공연, 주짓수

이름:정인

나이: 중2(15살)

하고싶은 것: 딱히 없음

내가 할 수 있는 것: 많이 없음

해봤던 것: 딱히 없음

이름: 정채용준

이번 무빙에 기대되는 점: 친구들과 더 친해지는거

내가 뛰다에 가서 하고싶은 것: 없음

좋아하는 것: 추리소설, 노래

잘하는 것: 없음

안녕하세요 저는 제천간디학교에 재학중인 정하연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은 잠을 자는 것과 머근니 걸 좋아하고 잘하는 것은 축구와 맛있게 먹기입니다. 뛰다에 가서 하고 싶은 것은 연기를 하는 것도 의미있고 좋지만 재밌고 좋은 추억 만들어서 즐겁게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짐: 소란 없이 잘 다녀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천간디학교에 재학중인 2학년 조예나입니다!! 저는 음악듣기와 먹는걸 좋아하고 춤을 잘 추진 못하지만 좋아합니다

남들이 잘 모르는 숨은 명곡 찾기도 좋아합니다

잘하는건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요번 기회로 제가 잘하는 것을 찾고싶습니다

저는 피아노를 연주할수 있습니다 막상 생각해보니

할줄 아는게 별로 없네요

저는 요번 뭐다에서 기대되는건 딱히 없어요 그냥 2주동안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서 행복한 기억으로 남았음 좋겠어요
행복한 기억으로 남기 위해서는 욕도 줄이고 다혈질적인 저의 성
격도 조금 줄이겠습니다
빨리 6월달이 와서 빨리 뭐다에 가고싶네요!!
6월달에 뵈요!!

일단 뭐다에 한번 가본적이 있다
작년 형들이 재밌는 쌤이 있어서 재밌을 것 같다
근데 요가는 어려울 것 같다
최대한 열심히 요가를 해보겠지만 힘들수도 있다
내가 좋아하는것과 잘하는게 있는데
그걸 뭐다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스포츠는 다 좋아하고 다 잘한다
그리고 작년부터 뭐다에 가고 싶었다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쟁이 연극을 해본적이 있고
주인공이었다
그래서 연기를 재대로 배워보고 싶다

저는 2학년 지연우입니다
제가 이번 무빙에 기대하는 것은 친하지 않은 친구들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은 음악과 운동입니다

머리로 생각하는건 정말 싫어합니다

잘하는 것은 기타이고 시도해보고 싶은 것은 오열하는 연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이름: 최현서

좋아하는거: 놀기, 놀기, 놀기,,,,, (좋아하는거 잘 모르겠다)

잘하는거: 놀기,,,,,사진찍기, 잘 모르겠다,,,,,

해보고싶은거: 글쓰기, 음악(작곡...?) 등등?

튀다에서 기대되는 것: 재밌게 무빙><!!

안녕하세요 제천간디학교 2학년 허찬솔이라고 합니다

이번 튀다에 가게 되었습니다만 막상 기대되는 점은 솔직히 말하
면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연극 자체를 해본적도 없고 하기 싫지도 않기에 막상 기대되는
점은 딱히 없네요

막상 기대되는 점도 없기에 튀다에 갔을 때 다짐 또한 있을 리가
만무 합니다

그러니 하고싶은것도 얼마 없네요

그저 그런 엑스트라 맡아서 열심히 하는 게 제가 바라는 거라면
바라는 것 아닌가 싶네요

원래 제가 지키려는 것이 괜히 다른거 하겠다고 하지 말고 하던
거나 잘하자 이기에 좋아하는 것은 전자기기, 일본어, 애니, 소
설, 만화 정도일 듯 하고 잘하는 것은 일본어뿐이 없는 것 같네

요

싫어하는 것은 눈에 띄는 것, 하기 싫은 것을 강제로 하기, 춤추기, 노래 부르기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냥 뛰다에 가서 논다는 느낌으로 가서 즐겁게 하다 오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가기 싫다고 말해봤자 가지 않는것도 아니고 이왕 가는거 즐기면서 간다는 느낌으로 즐기러 가보려고 합니다

이름: 형두희

좋아하는 것: 게임, 음악

싫어하는 것: 없음

기대되는 것: 화천, 연극

해봤던 것: 없음

해보고 싶은 것: 없음

다짐: 열심히 하겠습니다

2019학년도 2학년 움직이는학교 학생 평가서

1. '뛰다' 프로그램은 어땠나요?

자세히 써주세요. 왜 재밌었는지? 왜 힘들었는지? 전체 일정상 프로그램 배치는 어땠는지? 수업 중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인지?

요가(배요섭)

- ◆ 중간중간 자세를 취할 때마다 친구들이 앓는 소리를 냈다. 하지만 난 유연한 몸 탓에 전혀 자극 받지 않았다.
- ◆ 아침에 해서 좀 힘들긴했지만 재밌었어요. 또 안되는 동작이 많아서 힘들었다.
- ◆ 조금 힘들었지만 몸을 풀어주는 느낌이여서 좋았다.
- ◆ 재미있었다. 다들 힘들다고 했는데 난 재미있었다. 지루하기도 했지만...
- ◆ 힘든 데 재미있었다.
- ◆ 무빙 초반까지는 열심히 참여했지만 나중가서는 몸이 피곤하여 제대로 참여하지 못함.
- ◆ 아침마다 하는 것이 힘들고 귀찮았지만 그래도 좋았다.
- ◆ 아침부터 너무 힘들었다. 힘들어서 자꾸 화장실가고 그랬는데 약간 죄송하다.
- ◆ 조금 힘들긴 했지만 바쁜 일정 중 이거라도 없으면 몸을 풀거나 운동할 시간이 없을 것 같다.
- ◆ 애들은 힘들었다지만 나는 좋았다. 혼자 운동했으면 더 힘든데 다같이 해서 좋았당! 아침에 하니 피곤한데 시원한 느낌.
- ◆ 아침에 해서 졸리고 힘들었지만 몸이 시원해졌다.
- ◆ 몸이 가볍고 안 아플땐 재밌고 몸도 풀렸는데 힘들땐 정말 지옥이었다.
- ◆ 아침에 피곤한 몸을 깨워주는 시간이어서 좋았다. 처음엔 힘들고 하지만 계속하다보면 점점 편해지는? 행복한 시간이다. 요섭쌤 감사합니다. 같이 아침에 하는 요가가 좋았어요.
- ◆ 아침마다 힘들었지만 잠에서 깬다. 정말 짜고 싶은 수업 중 하나였다.
- ◆ 힘들었지만 재미있었다.
- ◆ 태양의 경배가 힘들었다. 아침마다 요가를 해서 몸이 힘들었다.
- ◆ 몸이 풀린 것 같다.
- ◆ 요가는 사실 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은데 쌤이 수업하실 때에는 끝까지 잘했던 것 같다.
- ◆ 너무 재미있었고 그리고 몸이 유연해지는 것 같아서 좋았다.
- ◆ 조금 힘들었지만 아침을 시작하기 너무 좋았다.
- ◆ 내 몸은 유연하지 않았다. 그래서 힘들었다.

- ◆ 힘들고 허리 아팠었다.

공간과 놀기& 말랑말랑 텍스트(싸싸)

- ◆ 나는 온라인 게임이나 보드게임보다 랜덤게임이나 술래잡기 같은 걸 더 좋아한다. 오랜만에 뛰어서 노니 좋았다. 그리고 한 모듬씩 역할을 정해 연극을 했는데 기대 이상을 뛰어넘는 연기력에 어메이징했다.
- ◆ 진짜 너무 재밌었다. 우리 학년이 남녀 섞여서 놀 일이 없었는데 1년만에 다같이 놀아서 좋았고 텍스트 수업이 연기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 ◆ 술래잡기 연기 하는 게 재밌고 선생님도 좋았다.
- ◆ 정말 재밌었다. 연기하는거부터가 재미있었다.
- ◆ 몸으로 놀고 연기를 하는데 매우 재밌었다.
- ◆ 공간과 놀기는 그냥 그랬는데 텍스트는 별로였다.
- ◆ 많은 게임을 해서 재밌었다. 텍스트를 해서 공연연습을 하기 편했다.
- ◆ 제일 재미있었고 싸싸가 그냥 좋다. 성격이 좋다.
- ◆ 멘토반이라서 어색한 친구들도 많았는데 이 수업으로 인해 어색함이 조금 풀린 거 같다.
- ◆ 친구들과 놀 수 있어서 좋았는데 알고보니 노는 것만이 아니라 다 연극에 도움이 되는 거라서 완전 일석이조였다.
- ◆ 재밌음. 공연을 위해 떨림을 줄이는 듯함.
- ◆ 말이 필요없을 정도로 재미있다.
- ◆ 다같이 공동체 놀이하는 느낌이어서 너무 좋았다.
- ◆ 친구들과 노는 느낌이라 너무 재밌었고 장면 연기연습이 공연 때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았다.
- ◆ 여러 가지 게임을 배울 수 있어 재밌었다. 많은 게임을 했으면 좋겠다.
- ◆ 첫날엔 이게 뭐지? 귀찮을 거 같았지만 너무 재미있었다. 친구들과 공간에서 놀고 텍스트로 대본을 읽고 그 장면을 친구들한테 발표했다. 너무 재밌었고 아쉬웠다. 쌤이 그리울 것 같다. 계속 하다보니 부끄러움이 없어졌다.
- ◆ 말 그대로 놀이만 해서 너무 재미있었다. 제대로 된 연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 ◆ 너무 재밌었다. 말랑말랑 텍스트가 연극할 때 도움이 많이 되었다. 싸싸쌤 사랑해요.
- ◆ 우리가 해야 될 주제로 놀이를 한다는 게 좋았다.
- ◆ 부끄러웠다.
- ◆ 에너지 넘치게 행동을 해서 파이팅있게 재미있었다.

그림그리기 & 아크로바틱과 뷰포인트(공병준)

- ◆ 지금까지 배웠던 춤과는 달랐다. 아직도 추면 조금 민망하다.
- ◆ 처음엔 힘들었는데 하다보니 더 힘들었고 그림그리는 건 재밌었다. 힘들긴 했지만 재밌었다.
- ◆ 걷는 게 점점 힘들었지만 점점 익숙해져서 재밌고 그림은 내가 못 그려서 힘들었다.
- ◆ 힘들긴 했지만 재미있었다.
- ◆ 골반이 만든 연극에 가장 큰 부분이었던 거 같다. 재미있었다.
- ◆ 이것도 뭐가뭔지 모르겠다. 그래도 재밌었다.
- ◆ 자세를 바로 잡아서 좋았고 선생님이 너무 재미있다.
- ◆ 너무 짧 시간에 그림을 후다닥 그려서 아쉽고 걷기와 정자세 배우기 등 너무 재밌었다.
- ◆ 눈 코 입을 따로 그려서 조합하니깐 너무 멋져서 해보고 싶다.
- ◆ 무대에서 서는 법, 걷는 법, 움직이는 법을 배움. 수업에는 느낌이 안나지만 연극연습하면 확실히 체감가능.
- ◆ 재미있었다. 걷는 게 힘들었는데 공연에는 도움됐다. 그림그리기 재미있당.
- ◆ 신박하게 그림을 그려서 좋았고 걷는 것은 조금 힘들었지만 공준쌤이 너무 잘 생기셨다.
- ◆ 처음 움직일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나중에 가서 너무 재미있었다. 그림을 그리는 방식이 다양해서 좋았다.
- ◆ 처음엔 이게 필요가 있나...?? 꼭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공연때도 다 들어가고 나중에 보니 하나하나 다 멋진 장면이 된 것 같다.
- ◆ 종이조각에 내 귀, 눈, 코, 입을 눈을 감고 그렸다. 마지막에 봤는데 너무 웃겼다. 몸으로 동작

하나하나 리듬을 타는 데 좋았고 걸기를 할 때 좋았고 자세도 좋아졌다. 쌤 수고하셨습니다!!

- ◆ 너무 재미있고 선생님이 잘 생겼다.
- ◆ 새로운 안무를 배워서 진짜 배우가 된 느낌이다. 걷는 거 진짜 너무너무 재밌었다. 너무 유용한 수업이다. 지금 또 배우고 싶다. 너무 일찍 끝나서 아쉽다.
- ◆ 그림그리기에 관심이 조금 있어서 좋았다.
- ◆ 내가 너무 이상할 걸 그린 것 같다.
- ◆ 약간 처음엔 이제 뭐지 싶었는데 뭔가 할수록 예술이라는 게 떠올랐다. 너무 아름답다.

이미지 글쓰기 몸으로 글쓰기 (이주야)

- ◆ 솔직히 그동안 글을 많이 써본적이 없는데 오랜만에 글을 써보니 의외로 글이 쪽쪽 써내려갔다. 아주 감성적이었던 시간을 가졌던 것 같다.
- ◆ 글쓰기라고 해서 질색하고 싫고 힘들 것 같았는데 내가 생각하던 글쓰기가 아니라 재밌기도하고 신기하기도 했고 여러 명에서 이어쓰는 건 좀 힘들었다.
- ◆ 글쓰기 별로인데 언젠가는 서봐야할 것 같아서 그냥 썼는데 잘 써져서 너무 좋았다.
- ◆ 글을 못 써서 그런지 힘들었고 하지만 글을 다 쓰고 나면 기본이 좋아졌다.
- ◆ 글쓰기 싫어하는데 되게 재밌어서 또 하고 싶다.
- ◆ 이미지가 있어서 글쓰기가 훨씬 편했다.
- ◆ 솔직히 글쓰기는 별로였다.
- ◆ 글쓰기인 듯 글쓰기 아닌 글쓰기를 해서 글이 잘 써졌다.
- ◆ 한두번 했을 때는 재미있었는데 너무 많이 해서 지루했다.
- ◆ 글쓰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재밌어서 좋은 시간이었던 거 같다.
- ◆ 글쓰기라고 해서 좀 싫었는데 하다보니 재밌었다. 엄청까진 아니었지만 그래도 딱 정당한 수업한 것 같다.
- ◆ 글을 쓰려면 항상 막막했는데 이렇게 사진을 보고 드는 생각을 적어보니깐 정말 쉽게 엮는 글을 쓸 수 있는 거 같아서 정말 좋았다.
- ◆ 글쓰기한 느낌이 들지 않음. 그저 재밌음. 의식의 흐름대로 적어도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걸 경험.
- ◆ 이때까지와 다른 방식이어서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거 같고, 내 안에 소리를 방출할 수 있었던 같다.
- ◆ 처음엔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되지? 했지만 적다보니 내 머릿속에 있던 생각들이 줄줄이 나왔다. 글을 쓰면서 내 머릿속에 이렇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너무 재밌었다. 이 수업 재미있다.
- ◆ 글 쓸 일이 학교에서는 거의 없는데 여기 와서 많이 써서 좋았다. 자유로운 주제로 쓸 수 있어서 좋았다.
- ◆ 처음 써보는 글이었지만 이미지를 이용해서 쓰는 거여서 재미있었다.
- ◆ 초등학교 때 글쓰기를 많이 해서 그런지 힘들지 않았다.
- ◆ 처음엔 좀 지루했지만 갈수록 재미있어져서 좋았다.
- ◆ 내 머리 속에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게 재미있었다.

소리로 이야기 만들기(최수진)

- ◆ 조금 참신한 음악시간 같았다. 하지만 역시 노래는 자신없...
- ◆ 한번도 안해본 활동이어서 재밌기도 했는데 힘들기도 했고 신기하기도 했다.
- ◆ 몸으로 소리내는게 힘들었다.
- ◆ 노래 부르는 게 재미있는 데 힘들다.
- ◆ 수진쌤 너무 재미있고 즐거웠지만 집중이 잘 안돼서 아쉬웠다.
- ◆ 항상 점심시간 후 2시 수업이라서 피곤했다. 그래도 수업내용을 좋았다.
- ◆ 생각보다 재미있어서 놀랐다.
- ◆ 뭐가 뭔지 모르겠고 노래 부르는 게 싫다.
- ◆ 몸에서 나는 소리들을 많이 몰랐는데 이 수업을 통해서 몸의 구조를 어느 정도 파악한 것 같다.
- ◆ 내 안에 다른 소리를 찾아서 기쁘다.
- ◆ 숲소리를 할 때 너무 진짜 숲같아서 좋았다.

- ◆ 소리로 이야기를 만드는 게 신선하여 재밌음. 어느 순간 몰입한 자기를 볼 수 있음.
- ◆ 처음에는 부끄러웠는데 재미있었다. 근데 좀 부끄러웠다. 막 한명씩 돌아가며 소리낼 때.
- ◆ 처음엔 쪽팔리고 어려웠는데 다른 사람 시선을 신경쓰지 않으니까 쉬워지고 쪽팔림도 점점 없어졌던 것 같다.
- ◆ 너무 신기했다. 내 몸에서 이런 소리가 나는 게 할 수 있다는 게. 서로 자신의 낼 수 있는 소리를 몸으로 내며 서로 2줄로 정렬하여 그 사이를 걷는데 진짜 숲속에 온거 같았다.
- ◆ 내가 자신있는 부분인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수업이라 좋았다.
- ◆ 이 수업이 없었으면 우리의 연극이 2% 부족하게 끝났을 것 같다.
- ◆ 수업이 많이 없어서 아쉬웠지만 재미있었다. 노래 부르는 거 좋았다.
- ◆ 신나는 노래를 만들어서 기분이 좋아지는 노래 너무너무 좋았던 수업이다.
- ◆ 모르는 소리를 많이 낼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장면 만들기 및 연극 연습(전체)

- ◆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지만 다시 하고싶진 않았다.
- ◆ 너무나도 재미있었다. 기회가 된다면 또 하고 싶다.
- ◆ 대사 외우는 게 힘들었다.
- ◆ 연극대사 외우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끝나고 나니깐 너무 재밌었다.
- ◆ 지루한 감이 없지않아 있었지만 너무 즐거웠고 또 의미있었다.
- ◆ 연습이 제일 재밌었다.
- ◆ 꿀잼. 여러번 반복하니깐 힘들긴 했다.
- ◆ 처음엔 힘들었는데 점점 재미있어졌다. 리허설 재미있었다.
- ◆ 대사 외우기가 힘들었지만 다 외우고 나서는 연극이 재밌어졌고 행동까지 더 하니깐 더욱 재밌었다.
- ◆ 시간 도둑, 시간이 훑 지나감. 그만큼 몰입되고 재밌음.
- ◆ 했던 걸 또하고 또해서 조금 지루했지만 연습이 된 거 같아서 좋다.
- ◆ 며칠만에 대사가 다 나온것고 신기하고 일주일만에 연극을 다 한 것도 신기했고 재미있었다.
- ◆ 장면 만들 때 너무 신기했고 연습할 때 친구들 앞에서 무언가를 할 때 많이 부끄러웠지만 계속 하다보니 그런 것도 없어지고 재밌고 좋았다.
- ◆ 시간이 금방 지나갔고 너무 너무 재밌는 시간이였다. 완성도가 올라갈수록 좋았다.
- ◆ 연극실력이 좋았다.
- ◆ 처음에는 잘 할 수 있을까 하고 걱정했는데 너무 성공적이였다.
- ◆ 연극 6학년때 조금 하고 안했는데 6학년 때하고 조금 달라서 재밌었다.
- ◆ 모든 쌤들이 재미있게 좋은 분위기를 해주셔서 행복했고 쌤들이 너무 좋다.

2. 연극 작품 및 공연은 어땠나요?

희곡 내용은 어땠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음엔 스토리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엄마, 아빠가 나를 알 수 있는 내용? ◆ 스토리가 이해가 안갔지만 재밌었다. ◆ 생각보다 길어서 놀랐고 재미있는 희곡이였다. ◆ 마음에 들었다. ◆ 스토리가 있는 내용을 생각했는데 그런 쪽은 아니어서 약간 당황했고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 처음에는 도대체 이게 뭘 내용이지 했는데 리허설 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니깐 완전 짱이였다. ◆ 좋았다. 좀 뜬금없는 내용도 있었지만 그냥 우리가 잘 해서 만족 ◆ 연극이라기 보단 안무가 많아 연기라는 느낌이 적음. 하지만 재밌음. ◆ 재미있었다. 되게 요즘 트렌드같이 깐지였다. 너무 멋있었다. 노래부터 움직임이 패션쇼 같았다. 대본은 그냥 그랬다. 움직임이 캐리~~ ◆ 요즘 트렌드에 맞는 안무랑 연극 너무 너무 좋았다. 간디의 새로운 역사를 쓴 거 같아서 좋다.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물을 찾아서 마지막에 보물을 찾았다. ◆ 새로운 장면도 있었음 했는데 말랑 텍스트때 했던 것들만 해서 좀 아쉬웠다. ◆ 너무 좋았고 재밌었다. 신기했고 멋있다. 우리가 이렇게 만든 게 신기했다. ◆ 처음에는 이해가 안갔지만 나중에 해보니 멋졌다. ◆ 좋았다. 역시 프로라선지 너무 좋았다.
<p>배역 배정은 어땠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역, 분량 모두 만족 ◆ 배역이라는 게 크게 없어서 좋았다. ◆ 좋았는데 좀 대사가 길어서 힘들었다. ◆ 나하고 잘 맞는 거 같아서 좋았다. ◆ 좋았다. 잘 분배된 것 같다. ◆ 적당했던 거 같다. ◆ 적당했다. ◆ 내가 저거 했으면...이라는 생각도 있었다. ◆ 마음에 들었다. 딱히 다른 배역이 없거 내가 좋아하는 거 같은 나를 표현?하는 말들이라... ◆ 나한테 잘 맞는 배역을 정해주신 것 같다. ◆ 멋있는 역할이 좋았다. ◆ 당황스러웠지만 예상했다. ◆ 대본 자체가 배역이라는 거의 영향이 거의 없음. ◆ 다들 적당히 골고루 잘 배분된 것 같았다. ◆ 배분 잘 된 것 같다. ◆ 좋았다. 마음에 들었다. 나랑은 다른 성격으로 연기를 해보고 뭔가 색달랐다. ◆ 나름 맘에 들었지만 다른 역할도 하고 싶었다.
<p>무대, 소품, 음향, 조명 등은 어땠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에 눈이 부셔서 잠깐 착시현상을 보았다. ◆ 다 좋았어요. 조명이 좀 덤긴했는데 예뻐어요. ◆ 너무 좋았다. 선생님 짱! ◆ 진짜 퀄리티가 너무 좋았다. ◆ 최고예요. ◆ 조명이 너무 멋졌고 처음 조명을 받았을 때 설렐다. ◆ 완벽했다. ◆ 주야쌤 수고하셨습니다. ◆ 조명이 조금 더운 거 빼고 다 좋았다. ◆ 워낙 완벽한 선생님들이라 허술한 점 하나도 없이 완벽했다. ◆ 그냥 다 좋았다. ◆ 모두 멋졌다. 무대도 좋았고 소품, 음향, 조명 다 좋았다. 무도 잘해주었다. ◆ 좋았다. 아무 일없이 잘돼서 좋았다. ◆ 아름다웠다.
<p>공연 발표는 어땠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기하게도 하나도 떨리지 않았고 대사를 틀리지도 않았다. 발표하고 나니 후련했다. ◆ 발표 하루 전에 다쳐서 슬펐다. 그래도 잘 한 거 같아서 좋다. ◆ 살짝 아쉬웠지만 만족스럽고 재밌었다. ◆ 너무나도 재밌었다. 또 하고싶다. ◆ 뿌듯하고 너무너무너무너무 재미있었다. ◆ 너무 떨렸고 짜릿했다. ◆ 너무 빨리 끝난 것 같다. ◆ 최고. 내가 제일 멋짐. ◆ 실수를 안해서 너무 좋았다. ◆ 후회없다. ◆ 와~ 너무 떨렸다. 관객석에 관객이 있어서 더 떨렸다. 좋았다. 끝나니 시원섭

	<p>섭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사를 틀려서 조금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좋았당. ◆ 처음엔 많이 부끄러웠지만 계속 하다보니 용기가 생겼다. 마지막에 실수를 한번 했지만 잘 끝냈다. 모두 끝까지 잘 해준것같다. 선생님들도 힘. ◆ 그 전 리허설에서 더 잘 한것같긴 하지만 후회는 없다. ◆ 안 틀리고 할 수 있어서 좋았다.
--	---

3. 생활하기에는 어땠나요?

숙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벌레가 문제 ◆ 딱 다 같이 생활하기 좋았다. ◆ 너무 어둡고 돌계단이 미끄럽다. ◆ 숙소는 좋았지만 이불이 덮을 게 좀 모자랐다. 나방과 벌레가 많았다. ◆ 음... 그냥 그랬다. 마을회관. 사실 별로다. 좁고 ◆ 쌤들이랑 같이 써서 불편. ◆ 남자 숙소가 더 좋은 것같지만 여자숙소도 너무 좋았다. ◆ 좀 시끄러운 거 빼고 좋았다. ◆ 숙소가 가까워서 좋았다. 구조가 맘에 들었다. ◆ 친구들이랑 지내기 좋았다. ◆ 좀 멀었고 돌계단 싫다. 방이 2개였는데 작은 방이여서 불편했다.
식단 및 간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맞게 입맛대로 잘 짜여져 있어 좋았다. ◆ 푸짐했다. 맛났다. ◆ 맛있는 게 많아서 좋았다. ◆ 너무 맛있어서 좋았다. 사실 하루를 이걸 기다리며 살았다. ◆ 식단은 모두 건강하게 좋았다. 그리고 간식도 모두 맛있고 좋았다. ◆ 밥이 너무 맛있었고 간식도 잘 짠 것같다. ◆ 쌤들이 정성스레 만들어주셔서 그런지 더 맛있었다.
공연장, 스튜디오, 식당, 카페, 기타 주변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깔끔하고 깨끗해서 좋았다. ◆ 깔끔하고 커서 좋았다. ◆ 족구를 할 수 있어서 좋았다. ◆ 풍경도 좋고 카페도 좋고 다 좋았다. ◆ 담배없는 마을이라면서 담배 냄새가 좀 낮어요. ◆ 식당에 우리 학번이 다 못 들어가서 좀 아쉽긴 했습니다.

4. 문항에 없지만 전하고 싶은 이야기 뭐든 적어주세요!

- ◆ 연극이 끝나서 밀렸던 피로가 몰려와서 그런지 좀 많이 우울하고 슬픔
- ◆ 뚜다 쌤들 우리 학교 선생님이오 왔으면 좋겠다.

간디 무빙 스쿨 - 보물을 찾아 떠나는 여행

작, 연출 공 준

(겨울-기다림)

#1

움직임 1

음악이 시작되고 배우들이 무대에 등장한다. 극장의 모든 문을 통해 등장. 무대의 바닥에는 산발적으로 방석이 놓여져 있다. 배우들은 무대를 걷다 방석을 대각선으로 정렬한 뒤 다시 걷는다. 한명의 배우가 다시 방석을 들어 무대 밖으로 나간다. 다른 배우들도 방석을 무대 밖으로 가져다 놓는다. 방석들은 무대의 양옆에 놓인다. 배우들 무대에 다시 등장. 격자로 걷는다. 격자로 걷다 배우들 무대 뒤편에 모인다. 정면을 보고 걸어 나온다. 뒤돌아 다시 무대 뒤편으로 걷는다. 걸어가는 도중 한명씩 돌아본다. 반복. 반복하는 도중 두 명의 배우만 가만히 서 있다. 다른 배우들은 점차 퇴장. 배우들이 방석 위에 중립자세로 선다. 두 명의 배우가 무대에 남아 있다.

장면 1

만약에.

응 만약에.

그러니까 만약에.

응 그러니까 만약에.

니가 씨앗이라면 어떤 꽃을 피울래?

다른 배우들 합류한다.

예나 야 우리 제일 먼저 뭐 할래?

지원 아 하고 싶은 거 엄청 많은데.

현서 우리 다 해보면 안돼?

다같이 하자.하자.

하연 나는 놀이동산 알바하고 싶어. 춤추면서 진행하는 알바 있잖아. 그거 하고 싶어. 아니면 간지 나는 카페 알바. 웬지 간지나. 카페 알바.

현지 돈 많이 벌고 싶어. 돈 벌면 옷 사고 화장품 사고 저축도 하고 자취도 할 거야. 그리고 되게 신나는 노래 나오고 1월 1일 12시 되면 약간 그런 술집 있잖아. 사람 북적북적하고 민증 검사하고. 그런 술집 갈래. 일본에도 가보고 싶고. 도쿄.

예나 나도 집에 있다가 12시 땡 하면 엄마 아빠한테 “나 나갔다 올게.” 하고 나가서 너네 만나서 놀아보고 싶어. 나이 때문에 못 해본 거 다 해보고 싶고. 편의점에서 못 샀던 거 다 사보고 싶어. 그리고 딱 외박하고 들어가는 거지. (다같이 환호성을 지른다.)

현서 나 고민 있어. 너네는 모르겠지만 나는 빠른 년생이니까 6학년 되고, 성인이 되면 나만 먼저 집에 가야하고 술집에도 못 들어가고. 음.....나는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어. 하면 내가 행복한 거.

다른 배우들 한명씩 무리에 합류한다.

용준 나는 결혼하고 싶어. 그리고 중산층이었으면 좋겠어. 알바를 많이 해봤으면 좋겠고. 편의점, 전단지 돌리기 다 팬찮아.

찬솔 공부를 해야겠죠? 대학을 가야 하니까. 일본어 전공하고 싶어요. 웬만큼 일본어로 대화 하는 건 자신 있거든요. 이리저리 치이지 않고 살고 싶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기.

찬울 나는 독립을 해야 해서 그게 먼저야. 돈이 많았으면 좋겠고. 나중에 뭐할지 이번 년도 안에 브리핑 해야 돼. 그냥 나는 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하고 싶어. 아 나 이번에 기타 이펙터를 중고로 샀어. 돈이 모자라서.

준 나는 욕심이 많아.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것저것 하다보니까 뭐하나 제대로 한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이야. 내가 뭘 하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직업군인도 좋고 영상 크레이터도 좋고 밴드랑 작곡가도 하고 싶어.

하늘 저는 웬만한 일을 다 해보고 싶어요. 경험도 많이 해보고 싶고 돈도 벌고 싶어요. 돈을 벌면 필요한 것도 사고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싶어요. 가끔씩 길을 가다 보면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한주 밴드를 만들고 싶어요. 기타 치는 게 좋거든요. 때에 따라 다른데 틈날 때마다 하고 싶은 만큼 치고 있어요. 자취도 하고 싶어요. 친구들과 같이 살고 싶고. 요리도 해보고 싶어요. 라면, 계란 프라이는 잘 할 수 있어요.

현태 가끔씩 학교에 있을 때 기타 치기도 귀찮고 움직이는 것도 귀찮을 때가 있어요. 몸이 무거워 지는 느낌?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기타는 취미로. 아직 기타를 직업으로 하고 싶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해 지금은 딱히 없어요.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뭔가 생각하거나 고민하거나 할 시간이 없거든요. 밤늦게 까지 놀아보고 술도 마셔보고 싶어요. 사실 술은 별로고 분위기가 좋을 것 같아요.

지원 해외에서 살고 싶어요. 호주나 프랑스도 좋아요. 환경이 좋잖아요. 친구들이랑 술집에서 술

도 먹어 보고 싶어요. 12시 넘어서까지 놀아보고 싶기도 해요. 아 근데 요즘 미세먼지가 좋아지고 있는 거래요. 사실은 좋아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더 예민하게 굴어서 안 좋아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래요.

다정 돈 많은 백수가 될래. 빌 게이츠 딸이면 되지 않을까? 그게 안 되면 돈 많이 벌어서 퇴사하면 되지. 아참 나 지우개가 없어.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지우개를 깜박하고 두고 왔어.

태경 아 저요? 아 딱히 없는데 딱히 없어요. 아 종각에 가서 종소리를 들을거예요. 돈이 많았으면 좋겠고 친구도 많았으면 좋겠어요. 거실이 넓은 집에서 혼자서 이불 덮고 여유를 즐기고 싶어요. 가구는 심플하게 많지 않았으면 좋겠고 흰색으로. 집이 넓으니까 거실에 누워야 제 맛이죠. (앉으려다) 아참 치킨 먹으면서요.

다슬 트럭에 카페를 차려서 돌아다니고 싶어요. 여기 저기. 그래서 집을 사고 셀프인테리어를 할거예요. 남자친구를 만들거고 세계여행을 갈거예요. 우선 미국에 가서 5성급호텔에 머물고 싶어요. 그리고 멕시코에 가서 또띠아 먹을 거예요. 아 남자친구랑 같이 갈래요.

산아 음악에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싶어요. 옛날부터 꿈이 가수였는데 이제는 춤추는 가수예요. 보컬이나 댄스 트레이너가 되고 싶기도 해요. 음악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연주회 발표하려고 12살 때부터 작곡을 했어요 12살에 2곡, 13살에 1곡.

재영 돈 많이 벌어서 효도하고 싶어요. 집에서 혼자 있을 때 빨래를 하는데 엄마 옷이 늘어나 있더라구요. 그 날 집 청소 엄청 열심히 했어요. 한번 혼자 살아보고 싶어요. 방이 더러운 게 기분 나쁠 것 같긴한데 하고 싶어요. 그리고 안 해도 되긴 한데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 연애하고 싶어요.

동진 하고 싶은 거요? 미래에? 딱 정해 놓지는 않았고 딱 하고 싶은 것도 별로 없고. 저는 될 때 되면 생기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슝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지만. 꿈 찾고 자유롭게 지내려고 했는데 1년 동안 놀고 먹고 한 것 같아요.

인 활이 너무 안 맞아요. 그게 제일 큰 고민이에요. 활을 쏘는 데 가장 중요한 건 폼이라고 생각해요. 자세가 정확해야 정확하게 날라가니까. 3~5초 정도는 버텼다가 놓죠. 세계일주 한번 해보고 싶구요. 언젠가는 사범이 됐으면 좋겠어요. 24반무예. 지금은 1단이에요. 올해 2단 한번 해보려구요. 근데 한번 하는데 참가비만 10만원이래요.

유환 영화감독이 꿈이었는데 요즘은 보컬도 하고 싶고 그래요. 음향 감독이나 조명 감독도 해보고 싶어요. 무대 뒤에서 기계 만지는 거 멋있잖아요. 바리스타도 해보고 싶어요. 내가 직접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을 해보고 싶어요.

두희 베이스리스트예요. 베이스를 치는데 중요한 건 박자. 박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이스는 기타처럼 솔로로 치는 게 아니라 드럼처럼 뒤에서 받쳐주는 역할이라 박자를 잘 맞춰줘야 해요. 그리고 소리를 정확하게 내는 것. 주법도 중요하지만 그다지 필요하지 않아요. 웬만한 주법은 다 할 줄 알아요.

연우 저요? 저는 대학교 O.T에 가고 싶어요. 가서 음대 사람들끼리 밤새도록 술 마시고 악기 연주하고 노래 부르고 싶어요. 기타리스트. 기타리스트가 되고 싶어요. 관객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기타리스트요.

#2

움직임 2 (봄-깨어남)

무대 위에 배우들이 걷기 시작한다. 속도와 높이, 방향, 멈춤을 제각기 다르게 선택한다. 걷는

중 정면을 바라보고 멈추고 다시 걷는다. 한 배우가 무대 중앙으로 천천히 걷기 시작하면 다른 배우들은 무대에 큰 원을 그리며 걷는다. 배우들은 하나의 덩어리가 된다. 무대 중앙의 배우가 쓰러지면 일제히 모여 앞 사람의 어깨에 손을 올린다.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우고 덩어리의 가운데서 움직임이 있다. 움직임을 시작으로 덩어리들은 다시 걷기 시작하며 점점 속도가 빨라지며 흩어진다.

수줍음

나는 혼자서는 모르다시피 했다,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죽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나는 그것이, 삶 자체가 두려웠다.
남의 눈에 띄고 싶지 않았다.
내 존재를 들키고 싶지 않았다.
나는 핏기를 잃고 여위어 가고 낮이 나갔다.
누가 내 목소리를 알아들을까
말하고 싶지도 않았다. 누가 나를 볼까.
보고 싶지 않았다. 걸으면서도 그림자가 미끄러져가듯
벽에 꼭 달라 붙었다.

장면 2

2-1

1 왜 헬리콥터를 훈련시켜서 햇빛에서 꿀을 빨아먹게 하지 않았을까? 왜 목요일은 제 입으로 금요일 다음에 오겠노라고 말하지 않을까? 3억분의 1의 확률에서 실패하고 사라진 또 다른 나였을 그들은 어땠을까?

2 무슨 말이야 그게.

1 야 넌 뭐가 제일 고민이냐?

2 나?(곰곰히 생각하다가)나는.....고민이 많은 내가 고민이야. 고민을 해서 고민이 없어지면 고민이 없겠다.

1 (웃으며) 존나, 뭘 말인지 알겠다.

2 (사이) 잘 모르겠어, 뭐가 맞는 건지. 꼭 혼자 작은 유리컵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 아닌 척 해봐도 결국 혼자인 것 같고. (잠깐 사이) 그냥 적당히 적응해야 되는 걸까? 그게 잘 안 되는 걸 어떡해. 원래는 꼭 참았는데, 요즘은 잘 안 참아져. 기침처럼 자꾸 나와. 나 답답하지?

1 야 니가 답답한 걸 왜 니가 무시하냐? (사이) 기침 같다면. 그건 똥 같은 거 아닌가? 야, 참지 마. 변비 걸려. (같이 웃는다.) 니가 힘든 걸 하찮게 여기지 마, 안 그래도 참아야 될 거 존나 많은데. 요즘 같은 세상엔 무조건 좇까 정신이야. (같이 소리친다.) 좇까 어쩌라고. (한숨 쉬며) 근데 그게 말이 쉽지. 진짜 걱정이다.

2-2

1 진짜 걱정이네

2 그렇게 걱정이다.

3 니들 인생이 더 걱정이야. 그나마 영어는 좀 하는 줄 알았는데 휴. 애들아, 영어는 암기야. 그냥 외워. 요즘 같은 세상에 외국어 하나 제대로 못하면 먹고 살 수 있겠어? 몽땅 숙어라고 생각하고 그냥 외워. 알겠어?

1,2 (같이) 응.

3 니들 아는 단어는 좀 있냐? 외우는 숙어는 좀 있어?

1 당연히 있지. 사람을 뭘로 보고.

3 뭐.뭘!

1 (자신있게) I, my, me, mine.

2 (눈치보다) you, your, you, yours.

3 나 중 1때 배운거를.....

1 (더 큰 소리로 또박또박) he, his, him, his.

3 환장하겠다.

2 (신나서) she, her,her,her

1 (의기양양하게) we, our, us, ours

1,2 (같이 놀라며) 오~~~~

2-3

1 오~~~~너희 어머니 도대체 뭘 만드신 거야, 하나도 안 익었잖아

2 달랑 컵라면 싸운 너보단 훨씬 낫거든?

3 야 너 이따 점심 때 알지?

2 또 뭘!

3 농구, 새끼야

2 야 나 미친개 나오면 안 해. 코뼈 나갈 일 있냐? 아우 또 욕은(한숨) 개 나만 갈구잖아. 완전 싸이코야.

3 야 괜찮아 그 형 착해.

2 뭘 근거로?

3 그 형 담배 안 피.

2 담배 안 피면 착한 거냐?

3 응. 아니야?

2 에라이 단순한 새끼. 너 아메바야?

1 근데 내가 벌써 한다고 얘기해 냈지롱.

2 아 몰라. 나 점심 때 잘거야.

1 미친놈. 오늘 수학, 물리 다 있는데 왜 점심 때 자냐? 그때 자야지. 정환이가 다 커버해 준다잖아. 선우야.(애교 부리며)아~~~~~앙 너 없으면 골은 누가 넣니. 너 없으면 리바운드 누가 하니. 아~~~~~앙 (정색하며) 야 정환아 니가 해봐.

3 (머뭇거리다 매우 어색하게) 선우야아아아아앙

(사이)

2 죽여버린다.

2-4

1 죽이진 마. 많이 화났어? 진짜 미안하다.....나도 저 정도 일 줄은 몰랐지.....미안해.....진짜

미안.

2 그럼, 나 그 오빠 전화 번호 좀.

1 누구.....? 아! 그 몽고반점 오빠는 좀 괜찮지.

2 아니. 주선자. 난 그 오빠가 제일 낫던데. 나 그 오빠 번호 좀.

1 누구?혹시.....쓰레기? 아.....우리 오빠데?

3 야 친오빠도 아니라며. 나도 귀엽던데?

2 의대본과 3학년이라 그랬지?

1 어.....(고민하다가) 근데 그 오빠 완전 쓰레긴데

3 왜?

1 뭐...옷도 잘 못입고

2 옷 잘 입었더만

1 매너도 없고

3 야 매너만 있더만

1 말도 잘 안해.

3 그게 켈 좋다. 말도 안 되는 아재 개그 하는 것 보단 나아

1

2 사투리 살짝 쓰는 것도 귀엽고. 야 빨리 번호 줘.

1 어....아....근데....(다급히 둘러대며) 그 오빠 여자 친구 있어.

2 어?

1지금 동거해.

2,3 (같이) 어? 쓰레기네.

2-5

1 정환아.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형이 쓰레기 같지만 나는 니가 형 때문에 공군사관학교 가는 거 싫다. 내 동생만큼은 꼭 하고 싶은 거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형 소원이다.

2 (눈물을 참으며) 형 때문 아니야. 내가 정말 가고 싶어서 그런 거야. 나 몰라?

1 (뻘뻘 쳐다본다.)

2 아 진짜야. 내가 뭐 바보냐? 그런 것도 구분 못할까봐?

1 응.....

2 (헛웃음 웃으며) 뭘 응이야, 응은.....아 진짜야. 왜 이래. 진짜라구.

1 진짜지?

2 좀 믿으라구.

2-6

1 믿으라고? 내가 너를 어떻게 믿냐? (책을 뺏어들고) 이걸 또 뭐야. 유령이 말은 못해도 책은 읽을 줄 아나보네? 오~어린왕자. 너 취향이 남다르다? 이게 무슨 냄새야? (쿵쿵 거리며 동희 냄새를 맡는다.) 어우 썩은 내. 야 왕자가 니 냄새 때문에 토끼겠다야.

2 유치하게 그러지 좀 마.

책을 빼앗아 동희에게 건넨다. 받으려는 순간 바닥에 떨어뜨린다.

2 (비웃으며)미안, 실수.

당황해서 고개를 들지 못한다. 준석, 자리로 돌아가다 선호와 마주친다.

2 (다시 환하게 웃으며) 있다 농구나 한 판 뜰래?

선호는 굳은 얼굴로 준석을 뚫어져라 쳐다본다. 준석을 무시하고 지나가서 책을 집어 동희의 손에 쥐어준다. 동희는 조심스레 고맙다는 눈짓을 보내고 책을 가방에 넣는다. 쳐다보고 있던 준석의 표정이 일그러진다.

2-7

1 드리워, 제발 죽어버려.

2 학폭 피해자? 웃기고 있네.

3 솔까 없는 것들이 관종각!

4 학폭 피해자 코스프레 존나 하다 도망간 버스

5 바이~ 잘 죽어. 또 태어나지 마라 똥2

1 그냥 조용히 쳐박혀 있어라.

2 야 너 땀에 암 걸리겠다.

3 나가 똤져라.

4 전학 가서 유명 짓 하고 있다더라. 실화냐?

5 지랄도 풍년이다.

(다같이)ㅋㅋㅋㅋ

땀글들을 떠올리며 도로가에 멍하니 서 있던 동희, 찻길을 향해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간다. 지나가다 그 모습을 본 선우가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동희를 부른다.

선우 : (나즈막하게)동희야..... (큰 소리로 다급하게) 동희야!

선우의 목소리에 놀란 동희가 멈칫한다. 동희는 뒤를 돌아보고 선우를 발견한다. 선우는 동희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고 동희도 천천히 뒷걸음질 쳐서 인도에 올라온다. 둘은 마주 본다

선우 : (태연한척 하며) 집에 가는 길이야?

동희 : (멍한 얼굴로) 넌?

선우 : 약속이 있어 누굴 좀 만나기로 했거든

동희 : 어.....

선우 : 마침 잘 됐다.(가방에서 책을 꺼내 동희에게 건넨다) 혹시 읽었어?

동희 : 아니.

선우 : 읽어봐, 난 세 번이나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느낌이 달라.

동희 : 빨리 읽고 줄게

선우 : 너 주려고 산거야.

동희 : 나 주려고?

선우 : 응 소설 좋아하는 거 같아서.

동희 : 고마워

선우 : 그리고..... 이거 힘 빠질 때 먹으면 충전돼. 자(초코바를 건넨다). 조심해서 가.

동희 : 어.

선우 : 내일 보자.(퇴장)

동희는 책과 초코바를 보며 그 자리에 서 있다.

#3 (여름_성장함)

움직임 3

두 명의 선두가 무대 대각선으로 교차하고 다른 배우들은 그 뒤를 따라 대각선으로 걷는다. 대각선의 걸음은 무대 외곽을 걷는 것으로 바뀐다. 한 명의 배우가 무대 중앙에 자리 잡고 리듬을 탄다. 배우들은 순차적으로 무대 중앙으로 모이고 마지막 배우가 도착하면 모두 하나의 덩어리 처럼 리듬을 탄다. rol up, roll down의 움직임이 이루어진다. 산발적으로 피어나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반복된다. 이후 리듬이 잦아들고 간단한 움직임이 파도타기로 이어진다. 그 중 한 명의 배우가 무대에 자리 잡으면 다른 배우들은 줄지어 무대를 퇴장한다.

장면3

한주 나는 비오는 날 집에서 문 열어두고 빗소리와 비 냄새를 맡으면서 자는 거. 그리고 사람들 안아주는 거.

하늘 나는 가족이랑 운동, 몸 쓰는 거, 먹는 걸 좋아하는데 누군가와 함께 먹는 게 좋아.

연우 기타도 좋고 조명이 있는 무대도 좋지만 백예린이 좋아. 목소리나 음식이 너무 좋아.

현지 엽기 떡볶이도 좋고 가족들과 함께 외식하는 거. 잘 생기고 키 큰 사람도 좋아. 학교에서 집 가는 버스 안에서 이어폰 끼고 노래듣는 것을 좋아해.

태경 음식 냄새가 좋아. 치킨, 버블티, 면요리, 연어초밥, 고기, 떡볶이, 볶음 라면, 굴 근데 사실은 먹는 걸 더 좋아해. 그리고 헬로키티 실내화를 좋아해.

찬울 나는 사람들이 좋아. 새로운 사람도 좋고 알던 사람도 좋아. 그리고 쏘 애플 노래가 좋아. 몽롱한 분위기와 연주를 좋아해.

찬솔 가족이 좋아. 집 냄새가 좋고. 신선한 밤공기도 좋고 극세사 이불도 좋아. 가위소리도 좋아해. 미용실 가위소리. 그리고 나는 일본어를 좋아해. 말하거나 쓰다보면 시간가는 줄 몰라.

유환 오후 햇살에 비친 우리 집 거실을 좋아하고 엄마 아빠 냄새, 집밥 냄새가 좋아. 짭조름한 감자튀김도 좋아하고 잘 구워진 삼겹살도 좋아. 여자 친구랑 데이트 하는 것도 좋고 바람에 스쳐 지나가는 여자 친구 냄새를 좋아해. 그리고 여기 내 목걸이.

인 나는 집. 그리고 돈. 돈이 있으면 집을 살 수 있으니까. 집은 그냥 좋아. 짜장면, 짬뽕, 치킨. 좋아하는 음식이 너무 많지만 돈이 좋아. 이걸 다 사먹을 수 있으니까.

준 사실 내가 게임을 하는 이유는 현실이 아닌 다른 곳에서 내가 원하는 무엇이 된다는 게 좋아서야. 내 친구들은 나를 끊임없이 생각하게 해주고 나의 비겁한 점을 말해줘. 혼자이게 하지 않

고 나에게 즐거움을 주면서도 슬픔을 줘. 사실 나는 친구들이 없으면 재미가 없다? 모든 나의 친구들, 형들, 누나들, 동생들이 아니면 나는 50%밖에 없어.

용준 고양이, 강아지, 토끼, 판다, 사슴. 나는 동물이 좋아 동물은 귀엽고 멋있으니까. 나는 귀여운게 좋아. 그냥 귀여우니까. 머리카락도 좋아. 여러 가지 멋이 있으니까.

동진 잠. 게임. 집. 고기. 만화책. 공으로 하는 스포츠. 음악. 누워 있는 거. 나. 가족. 친구들. 돈. 동물들. 노는 거. 영화 보는 거. 불량식품. 먹는 거. 피아노 치는 거. 땀 흘리는 거. PC방 가는 거. 눈 감고 있는 거.

현서 고구마 맛탕이 좋아. 화창한 날씨가 좋지만 구름도 좋아. 겨울도 좋아하고 눈도 좋아. 비오고 난 뒤 화창한 날씨도 좋고. 강태공이, 노현징, 다슈리, 지행, 예낭. 땀 흘리는 것도 좋고 기숙사에서 폭 잔 것도 좋아. 오래 자진 못하지만 난 자는 게 좋아.

다슬 펄을 먹는 순간 온 몸에 황홀한 느낌이 드는 버블티. 원래 맛있는 건 0칼로리야. 우리 강아지 뽀미와 뽀순이. 내 삶의 원동력이야. 평생 토마토 스파게티만 먹고 살 수 있어. 진짜야. 래퍼 루피. 날 흘린 너무나도 잘 생기고 멋진 사람. 아무 생각 없이 타는 그네. 노랑색과 주황색.

현태 나는 내가 좋아. 숫자 2와9가 좋아. 파란색이 좋아. 친구들 얼굴 보는 게 좋아. 주차장 냄새가 좋아. 나는 신발이 좋아. 평평한 나무 바닥이 좋아. 흰 양말이 좋아. 햇빛이 쨍쨍할 때 잔디밭에 누워있는 게 좋아.

두희 밤에 노래 듣는 걸 좋아해. 밤에 하는 모든 것이 좋아. 아침에 샤워하고 게임하는 걸 좋아하지. 점심엔 자거나 누워서 빈둥거리는 걸 좋아해. 저녁때는 연어 먹는 걸 좋아해. 스테이크보다 회로. 새벽 새는 걸 좋아해. 야 나 오늘 새벽 샌다.

지원 나는 빵 만드는 걸 좋아해. 빵이나 쿠키를 만들면 아무 생각 없이 집중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맛있게 먹는 모습이 더 좋아. 조용하면서 또 시끄러운 분위기도 좋아. 산책 시키는 게 귀찮을 때도 있지만 우리 집 가운데이랑 산책하는 게 좋아. 매운 걸 먹고 핵핵 거리는 내 모습이 웃겨서 다시 웃게 만드는 완전 매운 음식도 너무 좋아.

재영 힘든 일을 해서 땀나는 것 보다는 재밌게 놀고 자연스럽게 뚝뚝 떨어지는 땀이 좋아. 농구. 야구. 다 좋아. 나는 엄마가 베고 잔 베개를 좋아해. 동생이랑은 잠깐 잠깐 노는 게 좋아.

산아 나는 우리 가족이 좋아. 아니, 좋아한다는 말로는 모자라. 우리 가족을 사랑해. 딸을 위해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어주고 세상을 같이 걸어주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언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집 앞에 눈이 쌓이고 창문에 물이 맺혀있는 겨울이면 행복해져.

지혜 아무도 밟지 않은 눈을 밟았을 때. 잠을 잘 자고 개운하게 일어났을 때. 사이즈가 맞을까 고민했는데 딱 맞아 떨어질 때. 여유롭게 누워 따뜻한 햇살을 쬐 때. 신나거나 우울한 것 보다는 잔잔한 노래를 들을 때. 가끔은 수학 공부를 할 때. 좋은 향이 나는 향초나 디퓨저의 향을 맡을 때. 키우고 싶지는 않지만 귀여운 동물을 볼 때. 따뜻한 말을 들을 때.

하연 알람으로 일어나지 않는 날. 그날은 정말 기분이 좋아. 잠에서 깨서 비몽사몽 멍을 때리는 것도 좋고. 밥을 먹기 전에 흥분한 상태에서 내 앞에 먹을 게 있고 그 앞에는 TV가 있고 내 손에는 젓가락과 핸드폰만 있다면 세상에 부러울 게 없어. 밤에는 이별노래를 들어야 해.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슬퍼하겠지? 상상하며 듣는 이별노래. 그리고 팝콘 냄새.

예나 날씨에 따라 매일매일 달라지는 밤하늘. 웬지 기분이 좋아져 하루를 잘 마무리 하게 해주는 별이 많이 보이는 밤하늘. 그 하늘을 사진으로 남기는 것. 기분을 말랑말랑하게 해주는 강아지와 고양이. 오후 5시. 점심도 저녁도 아닌 애매한 시간이 너무 매력적인 오후 5시.

다정 고양이 카페가 좋다. 달콤한 망고 스무디 한 잔과 비스킷을 입 안에 옥여넣고 고양이 장난감을 한 손에 든 채 고양이와 논다는 건 과장 할 필요도 없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차가운 스

무디를 다 마시고 나면 입이 차가우니까 따뜻한 카푸치노를 주문해야 한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 상관없이 춥든, 덥든 날씨가 어떻든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 고양이의 따끈한 뱃살을 쫓물 딱 거리다 보면 더워질 테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에어컨의 쿨쿨한 냄새가 섞인 시원한 바람을 맞을테니까.

한 명의 배우가 마이크 앞에서 이야기 한다.

때로는 작은 고양이가 큰 고양이로 변할 수 있지. 그리고 큰 고양이가 작은 고양이로 변할 수도 있어. 때론, 하얀 고양이가 까만 고양이가 될 수 있어. 하지만 까만 고양이는 하얀 고양이가 될 수 없지. 보물을 찾으면 빨간 아이가 파란 아이가 될 수 있어. 세상의 모든 빨간색이 파란색이 되고 검은 고양이가 하얀색이 되어버린다면 이곳은 온도가 순식간에 떨어져 추운 겨울이 될 거야.

하얀 고양이야, 너는 바깥세상이 안 궁금하니?

나무 사이에 갇혀 사는 하얀 고양이가 말했다.

야옹.

너는 여기가 더 편하다고? 하지만 바깥세상은 재밌는 것도, 맛있는 것도 많은데. 네가 하고 싶은 일은 뭐든 할 수 있어.

하얀 고양이가 말했다.

나는 아직 바깥세상이 무서워.

그래도 우리 한번 나가보지 않을래?

그럼 날 감싸고 있는 나무들이 다 사라지면 그때 떠날게.

만약 네가 바닥을 딛고 일어날 마음만 먹는다면 아마 너는 커다란 꽃을 피우게 될 거야.

#4(가을_만개)

움직임 4

무대 앞쪽 구석에 덩어리로 자리 잡는다. 대각선 무대로 걸어간다. 상체 움직임이 생겨난다. 배우들 개별적으로 흩어지며 다시 처음 자리로 모인다. 배우들 시선을 객석의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옮긴다. 두 무리로 나누어진다. 대각선으로 교차. 섞이는 순간 느려졌다 다시 빨라진다. 무대 뒤편에 각자 자리를 잡고 안무 2를 춘다.

장면4

질문상자

현지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세상이 생겨나기 전에도 무언가가 있었을까? 아니면 아무 것도 없는데서 갑자기 생겨났을까?

연우 아무도 모르는 별이나 행성을 정말로 있다고 할 수 있을까?

한주 생명체는 오직 지구에만 있을까? 아니면 온 우주에 가득할까?

재영 천사가 있을까? 유령이 있을까? 그들을 본 사람이 있을까?

현재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는 사람이 있을까?
 태경 머리는 탄 생각으로 가득한데 다리는 어떻게 내가 가려는 곳으로 움직이는 것일까?
 지해 정확히 무엇이 두려운지도 모르면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을까? 무엇을 잃는 것이 가장 두렵지?
 찬솔 아주 오래전에 일어난 일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 왜 어떤 것은 잊어버리는 것일까?
 잊었던 일들이 어째서 문득 다시 생각나는 것일까?
 다솔 시간은 무엇일까? 지나간 일은 영원히 사라져 버리는 것일까?
 준 영원히 라는 것이 있을까? 영원하다는 것은 뭘까?
 예나 진짜 마술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가끔씩 기적이 일어나기도 할까?
 지원 내가 기억하는 일들이 정말로 일어났다고 할 수 있을까?
 인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동진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있을까?
 하늘 나는 왜 존재할까? 세상은 왜 존재할까? 도대체 왜 무언가가 존재하는 것일까?
 두희 쌍둥이는 두 개의 물방울처럼 똑같이 생겼지. 그렇다면 영혼도 똑같을 수 있을까?
 유환 다른 사람이 나 자신만큼 소중할 수 있을까?
 다정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일까? 필요한 단어를 머릿속에서 어떻게 찾아낼 수 있지?
 하연 왜 꿈을 꿀까? 잠자는 동안 내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현서 꿈 속에서 겪는 일 보다 깨어 있을 때 겪는 일이 정말로 더 사실적일까?
 용준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일까? 동물도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찬을 삶에서 가장 좋은 것.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산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 우리들의 노래

움직임5

배우들이 방석을 들고 대각선 방향으로 정렬하여 자리 잡는다. 5개의 단어로 만든 문장들을 이야기 한다. 그리고 5개 단어의 공간을 손으로 그린다. 그림을 그리는 도중 음악이 시작되면 배우들 모두 같은 템포로 방석을 들고 군무(안무 1)를 춘다. 군무의 마지막에 모두 쓰러지고 한 사람씩 일어나며 자신의 생일을 이야기한다.

